

과학기술! 우리의 희망입니다. 과학기술인! 우리의 자랑입니다.



제40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개최됐다.

글 | 김 현 _ 본지 기자 hkim@kofst.or.kr

제 40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렸다. 이 날 기념식은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와 채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해 이만기 기상청장, 김선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박찬석·서상기·임인배·홍창선 의원, 조완규 과총 명예회장 등 1천여 명의 정·관계 인사 및 과학기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김 부총리, “과학기술은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의제”

김우식 부총리는 이 날 치사를 통해 “1967년 과학기술처가 출범할 당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는 불모지와 다름없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세계 과학경쟁력 12위, 기술경쟁력 6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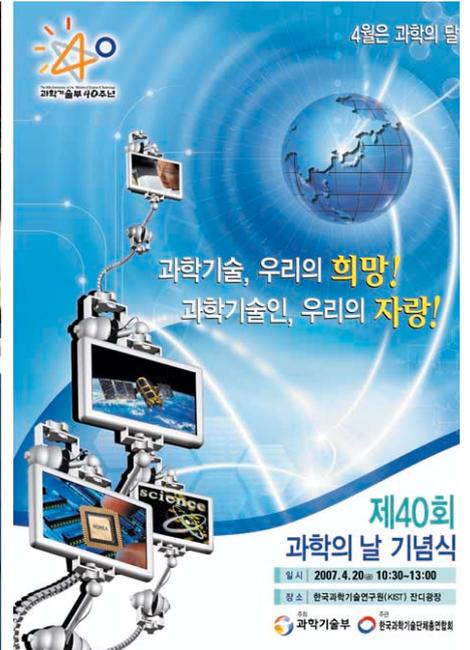
입지를 다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역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당당히 발돋움 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그간 어려운 여건에도 밤낮없이 연구현장을 지켜온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정, 과학기술입국에 대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창조적 수월성’에 의한 최고의 과학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제 과학기술은 국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이자 비전”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경쟁력 강화에 한층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미래 과학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가 '과학기술진흥유공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과학의 날 포스터

기술 의제 발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실현 ▶ 출연기관별 강점기술의 역량 강화 ▶ 핵융합과 우주기술 개발 적극 지원 ▶ 전주기적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 지속 보완·강화 ▶ 과학기술인 연구 전담 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이에 앞서 채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기념사에서 “이제 우리는 지난 날 우리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지금 또 다른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며 “최근 재계의 원로들이 입을 모아 5년 후의 우리 경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취약 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의 현안 문제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로,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 회장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과정의 많은 공(功) 중에서 굳이 한 가지 과(過)를 꼽자면 과학기술계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인력의 수가 날로 줄고 있는 현상을 초래한 일”이라고 적시하고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열정을 지니고 연구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계로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서명·선포

한편 이 날 기념식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



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과학기술계 대표 3단체가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에 공동 서명하고 선포했다.

채영복 과총 회장, 이현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김수삼 공학한림원 부회장 등 3인이 서명한 윤리강령은 과학기술인이 연구 분야와 소속 기관의 특성을 초월해 보편적으로 실천해야 할 포괄적 윤리 규범을 담은 것으로 전문과 본문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과

제 40회 과학의 날 기념식



식전행사로 '암모모 콘서트 앙상블'의 공연 모습

과학기술인의 기본 연구윤리, 보편성의 원칙, 법령의 준수, 연구 자료의 기록·보존, 저자표시 및 지식재산권,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연구환경 조성, 윤리 교육의 실시 등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24~25쪽 참조)

이번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선포는 과도한 연구업적 요구와 치열해지는 경쟁 풍토, 과학기술 연구의 산업과의 연계로 인한 이해상충의 증가, 사회나 정치권의 불합리한 학문 연구 개입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인이 '진실성과 정직성 추구'의 일관성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날 제정 과정 및 배경 설명에 나선 문유현 과총 사무총장은 "과학기술인은 어떠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진실하고 보편적인 행동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과학기술계 윤리 규범은 지난 해 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는 적용 대상을 국가연구개발 수행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으로 한정된 것이었으며, 과학기술계 대표단체들이 일선 현장의 의견을 모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연구 윤리 규범 통일안을 자율적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총은 이번 윤리강령 제정에 따른 세부 윤리규정이나 지침은 각 연구 기관이 특성과 성격에 맞게 작성하도록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풍성한 유공자 포상으로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이 날 기념식의 메인 행사로는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4인과 과학기술진흥유공자 79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KIST 국제협력관 앞에 마련된 '과학기술2030' 특별전시장 모습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대통령 상장과 3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2007년도 '제 5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임지순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와 최진호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교수, 권옥현 전기및컴퓨터공학부 교수, 서진석 연세대 의대 교수 등 4명에게 수여됐다.(인터뷰 기사 참조)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1968년부터 시행되어 온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과학기술부가 지난 2003년 확대·개편한 제도로 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이나 기술혁신으로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적의 과학기술인에게 시상하여 오고 있다.

과학기술진흥 유공자

2007년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포장 및 표창은 과학기술부장 29명, 과학기술포장 8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4명 등에게 수여됐다(명단 참조). 과학기술훈장의 최고 등급인 창조장수상자에게는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민구 서울대학교 교수, 김인세 부산대학교 총장 등 3명이 선정됐다. ㉮

2007년도 과학기술진흥유공포상자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김인세 (金仁世 · 60) 부산대학교 총장
 신성철 (申成徹 · 55)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민구 (韓民九 · 59) 서울대학교 교수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안진흥 (安鎭興 · 60)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세경 (李世慶 · 6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이장규 (李章揆 · 61) 서울대학교 교수
 장문호 (張文鎬 · 6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상섭 (韓相燮 · 61)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정성평가연구소장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명효철 (明孝喆 · 70) 고등과학원 교수
 신영애 (辛英愛 · 75)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윤부근 (尹富根 · 54) 삼성전자(주) 부사장
 이경광 (李景廣 · 5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태영 (丁泰榮 · 55)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홍정국 (洪政國 · 60) 일본 IBM 주식회사 부장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김성균 (金性均 · 63) 전남대학교 교수
 류시용 (柳時隆 · 62)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박상동 (朴相東 · 6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문위원
 오태환 (吳泰煥 · 64) 경희대학교 교수
 이문호 (李門浩 · 62) 전북대학교 교수
 이인희 (李仁喜 · 63) 한국스리엠(주) 기술총괄부사장
 함경수 (咸京洙 · 61) 조선대학교 교수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강대임 (姜大任 · 4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부부장
 김연규 (金然圭 · 49) ㈜엔티이 대표이사
 김호용 (金豪溶 · 55) 한국전기연구원 시험인증본부장
 남호기 (南浩基 · 57) 한국남동발전(주) 기술본부장

안규홍 (安圭洪 · 5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소결 (鄭小杰 · 55) 한국임반공학회장
 최순자 (崔順子 · 55) 인하대학교 교수
 황수일 (黃壽一 · 63)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전무

과학기술포장

김철중 (金哲仲 · 51) 충남대학교 교수
 신병천 (辛炳千 · 53) 한국기계연구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장
 신연숙 (辛然淑 · 49) 서울신문 국장
 윤진식 (尹津植 · 46) 한국경제신문 과학벤처중기부장
 이상록 (李相祿 · 54) 나노메카트로닉스기술개발사업단장
 정상국 (鄭相國 · 54) (주)LG 부사장
 조성재 (趙誠宰 · 5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허현회 (許賢會 · 5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대통령표창

김 건 (金健 · 58) 고려대학교 교수
 김경숙 (金京淑 · 47) 한전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병선 (金炳善 · 54) 한국기계연구원 KIMM-MIT 센터장
 김용주 (金容柱 · 54) 한국전기연구원 융합기술연구단장
 노도영 (魯都永 · 44)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박용운 (朴龍雲 · 48)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찬수 (朴燦洙 · 47) (주)광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배규진 (裴圭振 · 5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변옥환 (邊玉煥 · 5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Science 사업단장
 송석정 (宋錫政 · 52) (주)코오롱 중앙기술원장
 신종구 (申鍾求 · 57) (주)동아산전 대표이사
 이영춘 (李泳春 · 48) 동아대학교 교수
 이용호 (李龍鎬 · 4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임혜원 (林惠媛 · 4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영호 (田榮浩 · 4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BioMR전문연구사업단장
 한성구 (韓城求 · 4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팀장
 한성욱 (韓成燾 · 4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홍금식 (洪金植 · 50) 부산대학교 교수

국무총리표창

강재식 (姜在植 · 4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공중천 (孔鍾千 · 46) (주)재경전기 대표이사
 김경현 (金敬鉉 · 56)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숙환 (金肅煥 · 48)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윤수 (金允洙 · 4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격탐사팀장
 김태진 (金泰禎 · 41) (주)더스텍 대표이사
 노영희 (盧永熙 · 4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획부장
 명성호 (明聖鎬 · 48) 한국전기연구원 전기환경승진연구그룹장
 문성욱 (文盛昱 · 4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마이크로로시스템연구센터장
 박삼룡 (朴三龍 · 55) SK(주) 에너지연구소장
 배재성 (裴在成 · 4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홍보팀장
 손병호 (孫丙昊 · 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경제팀장
 오창현 (吳昌鉉 · 4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오천영 (吳天永 · 46) 이시벨중학교 교사
 유용호 (劉龍昊 · 48) 삼성엔지니어링(주) 기술연구소장
 이강철 (李康七 · 48) (주)하이닉스반도체 상무
 이대희 (李大熙 · 50) 한국전력기술(주) 부장
 전치권 (全治權 · 53) (주)아이시에스 대표이사
 정성화 (鄭成和 · 47)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택모 (鄭澤模 · 44)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성경 (趙成曠 · 37) 명지대학교 조교수
 조성희 (曹聖姬 · 58)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최원호 (崔元濤 · 45)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하의태 (河義泰 · 52) 두산중공업(주) 부장